국내 최초 사운드 모듈 국산화

멀티미디어 사운드 분야 새 장을 열다

이 달 수

(주)비오 대표이사

CD-ROM 노래반주기 「CD-Q」개발

음원 및 음원모듈 전문생산업체인 (주)비오(대표 李達洙)가 자동음정조절기능을 갖춘 CD롬 영상노래반주기 「CD-Q」(모델명 A-010)를 개발.

웨이브테이블 방식의 음원과 CD롬 방식의 음악저장 및 출력기법을 채택해 CD수준의 1천5백곡을 4천여컷의 정지화상과 함께 제공하는 「CD-Q」를 발표했다.

16메가바이트 웨이브를 내장한 이 제품은 특히 인공지능회로를 내장, 사용자의 음정 및 음색에 따라 자동으로 음정 및 박자 등을 조절할 수 있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사운드 폰트 기법을 이용한 자연음으로 이뤄진 국악기 음색 24종과 다양한 코러스 샘플링을 담고 있다.

비오는 이번 업소용 제품에 이어 오디오CD, 비디오CD, CDG(컴팩트 디스크 그래픽)등 복합기능을 갖춘 가정용「CD-Q」도 곧 출시할 계획인데 이 제품은 업소용과 달리 동화상을 기본으로 했다.

회사개요

설립일 : 1989년 5월 1일
대표이사 : 이 달 수
본사 :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316-1 이원빌딩 10층
전화번호 : 02)792-5115
자 본 금 : 2억원
생산품목 : 음원 샘플링, 음악제작 및 연주 사운드 모듈, 미디박스, 사운드 카드, 멀티스피커, 멀티미디어 관련기기, 영상프로그램 제작, 컴퓨터 그래픽, 게임기 S/W, H/W개발

21세기 생활문화 상품개발

(주)비오는 멀티미디어 상품을 향후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생활문화상품으로 인식하고, 미래사회를 선도할 제품의 개발을 위해 도전적이고 선도적인 기업경영 및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산업은 단순수치의 자본 투자뿐만 아니라 보편성에 근거를 둔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필수적이다.

또한 국제간 자본과 창조적인 아이디어간의 결합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에(주)비오는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3년간 5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자체적인 기술적 노하우를 축적해 가고 있다. 아울러 관련기업간의 기술협력과 상호보완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주)비오는 국내외 연구소 및 관련기업 과 자본, 기술의 이동과 MIDI에 관한 노하우 제공 등 상호보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가장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구에 세계 각국의 전통양식을 담는 첨단기술의 시대, (주)비오가 개발하고 생산하는 제품은 21세기 생활문화 상품이 될 것이다.

국내 멀티미디어 사운드 분야 새 장을 열다

(주)비오는 국내에서 단어조차 생소했던 Multi Media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 확보와 선진 외국기술 종속에서 탈피하여 자주적 기술력 확보를 위해 중소 기업임에도 불구 1991년부터 30여명의 전문연구 인력과 50여 억원의 막대한 연구 개발비를 투입하여 1993년 국내 최초로 Computer Digital Sound의 핵심 기초 기술인 음원 샘플링 기술과 무인 자막 시스템을 개발하여 국내 멀티미디어 사운드 분야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러한 기술개발 노하우와 첨단 수준의 음향 스튜디오 설비를 바탕으로 미디모듈 MIDI-BOX 및 가라오케 소프트웨어를 개발 생산하여 94년 10월에는 미디음악 및 가라오케의 본고장 일본에 100만불을 수출하는 쾌거를 올린 바 있다.

또한, 국악의 해인 '94년에는 우리의 소리인 국악음 연구에 착수하여 국내 최초로 국악음을 완벽히 재현하는 PCM 방식의 미디 음원화에 성공, 이를 사운드 카드와 미디 악기로 상품화하여 국악을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롤랜드, 야마하 등 선진 일본 전자악기 전문 회사로부터 수입에 의존해 오던 영상가요반주기, 디지털 피아노, 키보드 등 전자 악기의 핵심부품인 Digital Sound Engine(Sound Module)을 자체 개발하였으며 막대한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 된다.

이와 같은 기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수준 높고 현장감 있는 음악과 고화질의 화상을 구현하는 CD-ROM Type의 새로운 가요 반주기 "CD-Q"를 출시하여 국민 여가생활 선용에도 큰 몫을 하게 되었으며, 이 제품은 국내 최초 자체음원과 우리소리(국악 24종, 코러스)를 수록 국악음색으로 재편곡하여 한국인 특유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 할 수 있게 되었다.

기술개발 통한 자연음 창조

해외사업으로 신디사이저를 이용한 음원조합방식의 FM음원을 배제하고 자연음에 가까운 PCM Sampling(실제 ㅋ악기음을 샘플러로 채록한 후 악기 고유의 파형을 분석하여 악기 본연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만 디지털신호화하는 기술)한 세계 각 국의 고유 악기 음색을 통해 각 문화권에 접근할 수 있는 세계 범용의 음원을 개발하고 있다.

다각적인 소재와의 접목을 통한 신기술, 신상품의 개발을 위해 미국의 세계적인 미디 음원모듈전문 제조사인 "E"사와 기술협력 및

한국의 국악기음색을 CD-ROM화한 상품을 공동제작하여 전세계에 판매키로 계약, 제품의 완성단계에 있다.

일본의 가라오케전문사인 "N"사와는 ISDN(Intergrated Service Disital Netwirk : 종합디지털통신망)을 통한 한국, 일본, 홍콩을 잇는 가정용 가라오케 종합서비스산업을 계획하고 현재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중국, 동남아의 회교권 시장 진출을 위해 3년전부터 대만, 홍콩, 싱가폴, 말레이시아 등의 중국어 인기 가요 리스트를 테이터 베이스화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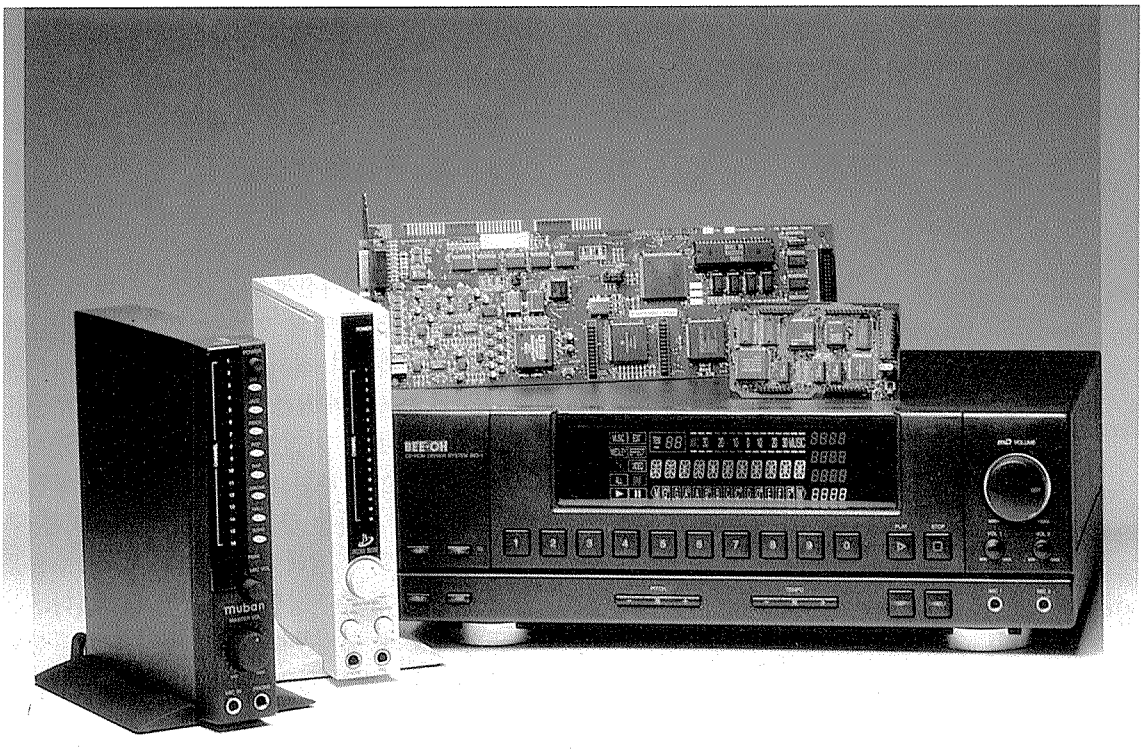
(주)비오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끊이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미래 멀티미디어 분야의 참다운 주역이 되고자 60여 전직원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업계 상호간 공동 규격 제정 시급

멀티미디어산업은 문화산업이자 지식산업이며 미래사회를 주도할 미래산업이다.

따라서 산업의 영역에는 한계가 없으며 기술노하우와 아이디어의 결합은 멀티미디어산업의 핵심이다.

경제성장의 한계에 다달은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산업구조를 고도화, 정보화시키면서 지식산업에 대한 투자와 육성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지직재산권 등 법적보호와 아울러 기업간의 공동규격 및 기술제휴 등 미래산업을 독점, 선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보호육성책과 기술노하우의 공유와 실험적 제품의 개발, 업체상호간의 공동규격적재정 등 열린 경영이 절실히 요구되어 진다.

이를 위해서 「멀티미디어 관련 기술정보에 대한 종합, 분석, 정보제공, 기술교류, 아이템간의 상호연계 및 관련상품의 상설전시를 주관할 수 있는 가칭 멀티미디어 센터와 같은 산학공동연구단체가 필요하다.」고 이달수 사장은 밝힌다.